

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92

2018.4.8

2018년 주님의교회 표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요한복음 3:16-17, 창세기 12:3, 마태복음 9:35)

오늘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_ 로마서 8:38,39

오늘의 주요기사

- 2 신년 특집 / 더 바이블
- 3 교회소식
- 4-5 우리들의 부활절 화보
- 6 사역 소식
- 7 목회칼럼 / 정신학원 역사
- 8 아가나들이 / 공동체 소식

교회 일정

- 4/15(주일) 장애인 주일
- 4/16(월)~17(화) 평양남노회
- 4/18(수) 1/4 제직회
- 4/29(주일) 어린이 주일 / 유아 세례식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주님의교회



우리들의 부활절

4월 1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끝에 부활하신 날, 부활절. 2018년 주님의교회 부활절은 지난 여느 해와 달랐다. 올해는 전교회 차원의 행사 없이, 부서마다 다채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소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다. > 4~5면, '2018년 우리들의 부활절' 화보

김화수 목사, 위임목사 청원 결의

4월 4일 공동의회에서 결의안 통과



2018년 4월 4일 수요일에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주님의교회 현 담임 목사인 김화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원하는 건이 결의되었다.

이날 평양남노회 강남시찰장인 송용섭 목사가 의장을 맡은 가운데 개최된 공동의회는 대리당회장 소개와 기도, 찬양 후, 공동의회 서기를 맡은 김성구 장로의 회원 점명 및 보고, 공동의회 의장의 공동의회 개회 선언으로 개최되었다. 이어 교회헌

법 제28조 담임목사 청빙서 제3항에 따라 "김화수 담임목사, 노회 위임목사 청원의 건"이 상정되었다. 김성구 장로는 제안 설명을 통해 그동안의 경과와 제안의 취지, 위임목사 청원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질의응답과 표결이 이어졌다. 의결 정족수는 참석 교인의 3분의 2 이상인데, 이날 참석자 140명 가운데 139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의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폐회를 선언하면서 이날 공동의회는 마무리되었다.

이후, 4월 17일 영주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인 평양남노회 정기노회에 위임목사 청원의 건이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노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김화수 목사는 정식으로 주님의교회의 위임목사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승인될 경우 5월 중에 위임예배를 가질 예정이다. > 관련기사 3면

함즐함울

신년특집 / 2018년 주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를 깊이 생각한다 ⑤

‘마을목회’의 성서적 배경(1)

2018년 주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역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 안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볼 기회를 갖는다. <함줄함울>은 총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한 자료를 입수, 몇 회에 걸쳐 요약 분재하여,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본다.

목차

- 1.종교개혁과 ‘거룩한 교회’의 참된 의미
- 2.교회의 ‘거룩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3. ‘마을목회’,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4. ‘마을목회’의 성서적 배경(이번호)
5. 선교적 관점에서 본 ‘세상 속으로’

“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비추어 본다면
어린이와 성인,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죄인과 의인 등
이분법적인 차별의 구조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

”

성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마을목회의 과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역사를 담고 있는 구약성서는 마을목회의 신학적 근거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형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인간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26~28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는 신분이나 계급 또는 나이에 의한 차별 그리고 남녀의 성별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유무에 따른 차별이 조금도 없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비추어 본다면 어린이와 성인,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죄인과 의인 등의 이분법적인 차별의 구조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듯이 창조 질서 안에서 구체화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평등한 존재임을 강조하

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다양한 율법 규정들이다. 오경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법령집, 곧 계약의 책(또는 계약 법전, 출 20:22~23:33)과 성결 법전(레 17~26장) 및 신명기 법전(신 12~26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법전들은 정의로운 공동체의 확립과 약자 보호를 기본 정신으로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시켜 본다면, 이 법전들은 가난한 정착 이후의 농경 문화권에서 본격화된 도시화 현상과 왕정의 출현 및 그로부터 비롯된 사회·경제적인 불의나 불평등에 대단히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보아 사회·경제적인 강자들이나 부요한 자들 또는 넉넉한 자들이 그 반대편에 있는 사회·경제적인 약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정적인 금지 명령과 그들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긍정적인

행위 규범의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법전들이 가난한 자들을 부요한 자들의 압제로부터 보호하는 한편으로, 기존의 계층 질서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의 재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평등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기본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아울러 이 법전들은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약자 내지는 가난한 자들이 강하고 부요한 자들에 의해 압제 당하는 사회적인 불의의 현실을 용납하지 않는 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 자신의 품성에서 찾는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강대 제국의 압제 하에 고통당하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분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의 사회·경제적인 약자들을 돌보시고 붙드시는 분이라는 설명(출 22:21; 23:9; 신 24:18; 참조. 신 10:18~19)이 그렇다.(계속)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더 바이블 (The Bible) 12

6. 모세오경

(3) 레위기 17~26장

레위기 후반부 17~26장은 일관성 있는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9:2).”라는 계명이다. 이 한 가지 규정으로 인해서 레위기 17~26장(27장을 포함하여서)은 ‘거룩한 법전’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할 거룩함을 향한 보편적 관심을 1~16장에서 반영하고 있다면 17장 이후의 후반부는 거룩한 법전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레위기 17장은 만남의 천막과 진영 안과 밖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16장과 함께 연결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 삶에 대한 제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레위기 1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성결한 백성의 삶에 대한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18, 2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지조항은 정결을 파괴하고 땅을 오염시키며 공동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는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해나가며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지조항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거룩함의 보편 체계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레위기 18장과 20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19장은 거룩의 실천이라는 중요한 사항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논하고 있다. 마치 19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행렬

을 시작하듯 19장은 거룩의 중요한 요소들을 세세하게 나열해주고 있다. 크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결국 거룩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척도에 달려 있는 것을 알게 한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후반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공동체에 나타나는 공의이다. 레위기 25장은 희년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공의를 논하고 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질문에 그것은 바로 희년에 대한 실천이라고 명확하게 레위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희년을 실천함은 곧 이웃 간에 공의에 대한 실천이 되는 것이다. 이후 거룩한 법전은 26장에서 토라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는 언약적 축복에 대해서 기술

하고 있고 불순종에 대해서 긴 서술을 통해서 순종은 곧 공의를 지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세속화되어 가는 사회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새로운 영성이 항상 존재함을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선과 악을 가르쳐서 구분 짓는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다. 레위기를 읽고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명확하고 뚜렷한 거룩한 삶의 지침이 무엇인지 깨달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은석 목사

김화수 담임목사, 위임목사 청원 / 해설

위임목사 청원, 무슨 의미이며 어떻게 진행되었나

4월 4일 공동의회에서 진행된 “김화수 담임목사, 위임목사 청원의 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면, 교회법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담임목사’의 의미가 교회법에는 좀 더 상세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총회헌법 제27조에는 목사의 칭호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로, 시무기간은 3년이다.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위임목사

는 공동의회 의장 등 교회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목회자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고, 자동적으로 담임목사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각 교회는 교회법상 노회에 소속되어 있고, 주님의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내 평양남노회에 지교회로 소속되어 있다. 각 지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노회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님의교회에서는 지난해에 청빙 절차를 거쳐 김화수 목사를 담임목사로 결

정한 후 노회의 허락을 얻은 바 있다. 이후 주님의교회에 대한 공식적인 의무와 권한을 갖는 위임목사로 승인받기 위한 절차가 이번의 위임목사 청원 결의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11일 당회에서 이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3월 18일에는 대리 당회장 주재 아래 임시당회를 열어 이 사안을 의결한 바 있다. 4월 4일의 공동의회는 ‘위임목사의 청원’이 총회헌법 제28조에 따라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이기 때문이다. 위임목사의 청원이 결의되면

노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후 정식으로 위임예배를 드리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주님의교회의 전례를 살펴보면, 이재철 목사는 창립 3주년이 되던 1991년 6월에 위임되었고, 임영수 목사는 1998년 6월에 설교를 시작하여, 12월에 담임목사로 취임한 후 1999년 5월에 위임되었다. 문동학 목사는 2003년 1월에 부임하여 6월에 위임되었고, 박원호 목사는 2007년 6월에 부임하여 10월에 위임된 바 있다.

함글함글

하나원 239기 수료생 정착결연사역 ‘다시 만나요’

지난 3월 10일 토요일 통일선교분과 위원회는 하나원 239기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정착결연사역의 일환으로 ‘다시 만나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다시 만나요’ 행사는 작년 12월에 하나원 도시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주님의교회를 방문했던 하나원생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정착결연사역은 탈북민과 교회 성도들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탈북민들이 이 땅에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잘 정착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탈북민들에게 이 땅에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문화체험에서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다시 만나요>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 헤어졌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다시 만남은 탈북민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도시문화체험 때 하나원 자매들을 성심껏 섬겼던 권

사님과 집사님들이 이번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주님의교회 남북청년모임인 너나들이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귀한 봉사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원 목사님들이 일일이 연락을 받고 한정협에서 연결하여 239기 수료생 50여 분이 ‘다시 만나요’ 모임에 오셨습니다. 그 중에는 충청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심지어 멀리 부산에서도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는지 전날 미리 올라와서 지인들의 집에서 하룻밤을 잤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낯선 길이지만 우리가 일러준 대로 주님의교회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분들이 소예배실로 걸어 들어올 때 얼마나 반가운지 서로 얼싸안고 기쁨으로 해후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바깥 세상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첫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 먼저 이 땅에 와서 정착하

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너나들이 청년들이 축복송을 부르고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 먼저 온 고향사람들을 보니 수료생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배 후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롯데월드타워로 이동하여 타워 31층에 있는 SKY31에서 전망을 즐기며 맛있는 식사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올림픽공원으로 이동하여 몽촌토성에 올랐습니다. 이른 봄의 자연을 즐기며 함께 사진도 맘껏 찍고 재잘재잘 서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토성 위를 산책하다가 높은 곳에서 함께 억눌렀던 마음을 쏟아놓는 소리도 지르고 넓은 잔디밭에서 레크레이션 게임을 하면서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 어느덧 마무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한 윗동네 청년의 나눔입니다. “오늘 올림픽 공원에서 남북이 함께 만나서 노는데 마치 통일잔치 같아서, 성경의 비유처럼 마지막 때 성도와 재림 예수가 만나 기뻐 잔치하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림이 연상되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이 중요한 때에 남북 주민이 만나는 모습이 마치 곧 통일이 올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너무 벅찼습니다. 새로 오신 북녘의 주민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밝고 환희에 차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기대를 안고 사는 이들이 상처 받지 않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통일선교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오신 분들을 올 가을에 있을 통일선교바자회 통일장마당에 꼭 다시 한번 초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통일선교분과위원회



우리들의 부활절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3월 31일 새벽, 교회를 대청소 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오전 6시 30분부터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아침 식사를 먹고 나서 각 부서마다 구역을 나누어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교회 안팎을 쓸고 닦았습니다. 대예배당에 성금요일에 설치된 무대를 철거하고, 주방 청소부터 계단과 1층 소예배실, 지하 중예배실까지 평소 주일에 하기 힘든 의자 밑 먼지를 털고 닦았습니다. 교회 주변과 운동장까지 비질을 하고, 화분에 봄 화초를 심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맞으려는 정성에 모두들 힘드는 줄 모르고 맡은 구역 청소를 끝냈습니다.



사랑나무

살롬! 사랑나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뜻 깊은 날을 축하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달걀에 각자의 손으로 부활이라는 글씨를 새기고, 십자가를 그려 넣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막을 연 하나님 나라의 밝은 빛이 사랑나무와 주님의교회를 밝히 비추기를 빕니다.



아기부

하임 아기부에서는 부모님과 아기들이 찬양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기들에게 눈을 맞추며 찬양을 들려주었고 아기들은 조그마한 손으로 마라카스를 흔들며 기쁨과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아기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 불러가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새 친구들이 많았던 부활주일! 아기부 가족들은 하나 되어서로 축복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유치부

부활절을 맞이하여 유치부 친구들은 특별한 활동을 했습니다. 예배시간에는 부활절 관련 찬양과 율동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구요. 말씀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주변 친구들에게 전하기로 약속했어요. 예배를 마친 후 반별모임으로 계란 꾸미기를 했는데요. 플라스틱 계란 모형 속에 사탕, 캐러멜을 넣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전하는 활동을 했어요. 비록 짧았지만 활동을 통해 부활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영어예배

Greetings! 주님의 교회 안에 작은 영어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린이 주일 영어예배부는 오전 11시 30분에 5층 제1집회실에서 초1-6학년으로 구성된 30여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영어예배부는 일년에 두 번, 부활주일과 성탄주일에 성인 영어예배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 주 아이들이 부활주일 예배에 특송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성찬에도 참여하여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어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을 어린이 영어예배에 초대합니다.





영아부

꼬물꼬물 뒹뒹뒹~, 서툴고 작은 몸짓이지만 커다란 정성과 기쁨으로 드린 하늘씨앗 영아부의 부활절 예배를 소개합니다. “영영영~ 슬프게 울던 사람들이, 하하호호 기쁘게 웃었대요. 무슨 일일까? 말씀 속으로 쏙~”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으쓱으쓱 흔들흔들~ 신기하고도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알록달록 예쁜 색깔 습자지로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큰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를 바라세요. 멋진 계란 바구니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할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기쁨이 뽕뽕뽕, 사랑이 뽕뽕뽕, 하늘씨앗 영아부 친구들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소년부

소년 2부는 “어린양 예수, 나도 따를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지신 어린양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달걀 양 만들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각자가 양의 털을 하나씩 붙이면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찢기신 예수님을 목상하고, 어린양을 예수님 앞에 올려놓고,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 옆에 붙여놓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활절 아침에는 예수님의 생애 전시전(4.1~4.29)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에서부터 오랫동안 교회에 나온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로 큰 기쁨을 나누며 도란 도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년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인 부활절, 유년부에서는 특별한 예배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배 때는 불을 끄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을까’ 생각해보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천사와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반별 모임 때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계란선물을 꾸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계란을 넣고 그 위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넣어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알리는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청년부

청년부는 이번에 초대교회에서 부활절 새벽에 했던 전통 ‘세례언약의 재확인’예식과 더불어 예전적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영적 건망증에 걸렸지만, 부활절 예배를 통해 그동안 잊혀진 정체성과 소명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부장단은 직접 구운 계란을 청년들에게 선물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청소년 사역 특집

정신여중 학부모 연수, 주님의교회 가족 초대

**부모도 학생 자신도 힘든 사춘기 시절,
부모와 자녀가 지혜롭게 함께
극복해 나가고,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

3월17일(토) 애니엘러스홀에서 ‘사춘기 우리 아이 이해하고 소통하기’라는 주제로 정신여중에서 주최하는 학부모연수가 진행되었다. 매년 진행되는 학부모연수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정신여중에서 주님의교회 학부모와 교사, 청소년 관련 지도자들을 초대

해 주어 학부모와 더불어 교회 안 청소년사역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준비되었다.

한만수 정신여중 상담실장(서울전문상담교사협회장)을 모시고 오전 9:30-오후12:30까지 애니엘러스홀에서 진행된 강의를 통해, 부모도 학생 자신도 힘든 사춘기 시절, 이 단계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뇌과학으로 우리 아이 이해하기, 다양한 관점에

서 우리 아이 이해하기, 우리 아이와 소통하기 등의 내용을 통해 사춘기 청소년들의 특별한 상황과 환경, 성장의 단계 등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1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만족도 설문결과, 매우 만족 88%, 만족 12%, 보통/불만족/매우 불만족은 없음으로 평가되었다.

이 강의에 참석한 주님의교회 한성도는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 배움의 장과 기회들이 더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의에 참석한 소감을 들려주었다. 상담학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

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준 정신여중 한만수 상담실장은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 누구도 우리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때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통을 위해 때로는 부모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녀의 건강한 사춘기와 미래를 위해 자녀와 지혜롭게 잘 소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님의교회 청소년 학부모와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전해왔다. **임경순 목사**

2018년 학원선교부 봄 세미나 열려

2001년 정신여고 1개 반을 대상으로 매월 1시간 성경수업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 주님의교회의 학원선교사역은 현재 기도어머니(월 1시간, 년 9회, 정신여고 학생들과 ‘기도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만나 힘들고 아픈 청소년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77명, 사랑어머니(정신여중 2학년 대상 ‘나눔과섬김’ 수련회 ‘인성훈련’시간에 학생들을 만나 상담사역을 하며, 1:1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 40명이 함께 참여하여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외부 교회에서 오시는 기도어머니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많다.

학원선교부는 1년의 사역 가운데 봄과 가을 두 차례의 세미나와 년 1회 신입회원들의 교육세미나를 준비한다. 지난 3월15일(목)에 신입회원교육세미나가 진행되었고, 3월 22일(목) 지하찬양대실에서 봄 세미나가 열렸다.

봄 세미나 강사로 초대된 김화수 담임목사는 현재 우리 시대를 진단하면서, 우리 모두가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종착역병(목적지병, Destination Disease)에 걸려있다고 말하면서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와 성과만 내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 조금 느리더라도 바르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과정 자체가 성공이



고 승리한 것임을 알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격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오직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 후, 최병훈목사(정신여고 교목)와 김인혜목사(정신여중 교목), 청소년분과 이용수장로의 격려와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고, 점심식사 후, 기도어머니수업 준비와 사랑어머니 복음제시 준비 모임이 진행되었다. 기도어머니와 사랑어머니의 사역을 통해 정신여중고 우리의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해본다. **임경순 목사**

목회칼럼

시청각화한 말씀묵상, ‘묵상 예배드라마’와 주님의 놀이터, ‘무지개 잔치’

영성에 관심 있는 예술가들은 평범한 일상과 자연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각 분야의 예술은 자신만의 독특한 리듬과 템포 그리고 이미지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하도록 만드는데 긍정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성과로 예술이 묵상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술과 음악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이런 심도 깊은 연구는 지속되었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묵상과 밀접한 연극을 추구한 대표적인 연출가는 폴란드의 그로토프스 킵니다. 연극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완성도를 추구했지만 아주 인상적인 것은 관객과의 소통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공연을 한 번 하는데 15명 정도의 선택된 관객을 정합니다. 그리고 15명 정도만의 선택된 관객은 공연 전 미팅실로 모입니다. 한 배우가 나와서 관객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누고 작품을 소개하고 그 날 볼 드라마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그 후 공연장으로 들어가서 드라마를 관람하게 되는데 묵상을 위해 최적화된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그 주제를 묵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적지않은 충격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마친 후 티타임을 가지면서 배우들과 그 날 무대에서 보여준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은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라마를 통해서 깊이 묵상이 되어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런 묵상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선보인 예배드라마가 이번 성 금요일에 올린 묵상예배드라마 ‘수난’이었습니다. 지난 6년간 올려진 부활절 예배드라마에 있어서는 이야기의 전개가 중요했다면 이번 묵상예배드라마는 예수님의 ‘수난’이라는 명확하게 드러난 주제와 스토리를 통해 깊이 있는 묵상을 전개하도록 연출된 작품이었습니다. 고통을 좀 더 묵상하기 좋게 하기 위해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라는 단계별 접근을 유도했고 이런 각 고통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자는 의도로 연출되었습니다. 연기자들이 말한 독백들도 각각 맡은 인물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연기자들의 묵상을 대사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성 금요일예배까지 3주간 주어진 시간 안에 기획부터 연습까지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만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갑자기 주어진 예배드라마 준비에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개인 스케줄을 조정해서 예배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기꺼이 헌신해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래 전부터 예배드라마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못했던 점이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표현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길이며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신기한 것은 어린이들은 그 표현을 놀이를 바탕으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놀이가 사라지는 문화가 될수록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사고보다 감정적인 치우침 속에서 걱정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아이들에게 건강한 놀이터가 되어주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교가 다르더



라도, 생각과 나이가 달라도 함께 뛰놀고 함께 친해지는 공간의 필요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5월 5일 무지개 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정말 재미있게 놀 수 있다면, 그 날 주님의 교회가 숲이 되고 놀이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한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품이 된다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나갑니다.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가져도 수고함이 없이는 그 달란트가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일지라도 수고함이 더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마 25:23)

문규호 목사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53

학교 재산의 양도과정(2)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 본관, 교지 등을 학교법인 정신학원에 무상증여



연지동 교지의 실측도

1964년 4월 25일,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재단법인 정신학원에서 학교법인 정신학원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았다. 이때,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는 본관 건물을 학교법인 정신학원으로 무상으로 증여했다. 1970년 1월

5일에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 소속 한국선교회의 명칭을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으로 변경하고, 학교의 교지를 학교에 무상으로 증여했다. 이에 따라서 정신학원은 교지와 건물을 자체적으

로 소유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정신학원의 설립과 유지에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의지와 지원이 밑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87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가 정신학원을 설립하고 직접 운영했던 데에서 정신학원의 130년 역사가 시작되었다. 1927년 일제에 의해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기독교계 학교인 정신학원도 조선에서 철수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1935년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1936년 한국선교부가 교육 철수를 결의하고,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가 승인하면서 학교를 폐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경기노회와 동문회가 학교를 조선인에게 인계해줄 것을 요청하여, 조선인에게

양도하도록 논의가 진행되던 중,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였고, 적산관련법에 의해 미국 소유인 정신여학교도 일본 재산으로 귀속되었으며, 일제는 1945년 학교를 폐교시켰다.

1945년 해방이 되자 1947년 동문회와 경기노회에 의해 정신학교가 복교되고 운영이 시작되었지만 학교재산은 여전히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는 기독교 학교의 설립이념을 유지하도록 1960년 정관에 경기노회에 인준권을 장치하고, 마침내 1964년 학교 건물을, 1970년 학교 토지를 학교에 무상으로 헌납하면서, 학교의 운영 및 재산을 학교법인 정신학원에 그대로 넘긴 것이었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아기나들이**정지훈 아기**

2017년 7월 20일생

1. 주의 사랑 안에서 몸과 마음, 영혼이 강건하게 자라길
2. 생각이 통하는 친구, 훌륭한 스승, 좋은 목자, 믿음의 배우자 등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3. 주님 나라를 위해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길

아빠 정민수 / 엄마 최윤정, 2018년 4월 1일 3부 예배

**유시은 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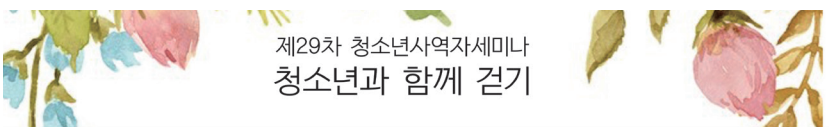
2017년 12월 3일생

1. 온 맘 다해 하나님 섬기는 자녀되도록
2. 자신처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3. 영육이 강건하고 밝고 지혜롭게 자라도록

아빠 유성훈 / 엄마 박수진, 2018년 4월 8일 4부 예배

공동체 소식**2018년 첫 훈련병 진중 세례식**

3월 24일 철원 6사단 신교대대에서 2018년 첫 훈련병 진중 세례식이 거행되었다. 최방은 목사님과 군선교팀, 호산나 무용단과 함께한 이 세례식에 참석한 신병들은 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서약했다.

제29차 청소년사역자세미나
청소년과 함께 걷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시 : 2018년 5월 14일(월)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 주님의교회 1층 소예배실
대상 :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등록비 : 무료 (선착순 마감, 식사/간식 제공)

특강1 : "청소년의 영적 탄력성"
(Spiritual Resilience)

강사 : 강태신 목사

현 안산제일교회 상담부 담당
전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외래교수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특강2 : "사춘기 우리아이와 소통하기"

강사 : 한만수 상담실장

현 정신여중 상담실장
현 서울전문상담교회협의회 회장

공동체 소식**입교세례식**

2018년 3월 25일, 종려주일에 입교세례예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입교20명, 세례 20명이 안수를 받았다.

입교 김강현, 엄소연, 엄승우, 황지영, 고영주, 김수경, 김유민, 김유선, 김유현, 방희원, 서예준, 송주은, 안지은, 이다은, 정승연, 조윤아, 조윤채, 주가은, 황상혁, 황현지

세례 구교원, 권동현, 김근백, 노세호, 박소연, 박종우, 박주홍, 서영민, 손혁진, 송지호, 오민혁, 이정민, 이종신, 이주연, 장 연, 정석균, 조현숙, 한승아, 황상석, 현재원

함줄함줄

3월 새가족 환영회

3월 새가족 환영회가 25일 새가족실에서 진행되었다. 4주간의 새가족 양육과정을 마치고 주님의교회 교우가 된 교우들이 큰 나무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새벽기도 헌신자 3월 기도모임

3월 17일 3층 소년부실에서 김화수 담임목사와 헌신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벽기도 헌신자 3월 기도모임이 진행되었다.

알립니다**1. 유아세례 신청 및 교육**

대상 : 교회등록 6개월이상 세례교인의 24개월 미만 아기

신청 : 3/25(주일)~4/8(주일) 안내데스크(1층)

교육 : 4/15, 22(주일) 2주간 오후1:30 초등부실(3층)

유아세례식 : 4/29(주일) 3부 예배시

문의 : 나관주 안수집사(010.4322.9917)

2. 5·6월호 큐티책(큐티인) 판매

일시 : 4/15, 22(주일) 2주간 오전8:30~오후2:00 1층로비

가격 : 5,000원(권당 할인금액 500원은 아동부 큐티책 구입 지원에 사용됩니다)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02) 416-5183**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